



# 이케다 다이사쿠

프로필

2024년 1월





# 목 차

## 이케다 다이사쿠 프로필

■ 1. 주요 업적 .....	1
◆ 사진 .....	3
■ 2. 생애 .....	4
◆ 사진 .....	6
■ 3. 평화운동가	
◆ 3.1 핵폐기를 향한 도전 .....	7
◆ 3.2 시민외교와 대화 .....	10
◆ 3.3 시민사회 리더십과 유엔 지원 .....	14
◆ 3.4 세계시민정신 고취 .....	17
◆ 사진 .....	19
■ 4. 불교철학자	
◆ 4.1 행동하는 불교 .....	21
◆ 4.2 종교 간 대화 .....	22
◆ 사진 .....	23

## 부록

■ 제언 .....	24
(평화, 유엔, 핵폐기, 지속가능발전, 교육, 중일 우호)	
■ 저서	
◆ 불교철학 .....	27
◆ 대담 .....	27
◆ 소셜·일기·강연 .....	28
◆ 기타 주제 .....	28
■ 설립 기관	
◆ 동양철학 .....	29
◆ 문화교류 .....	29
◆ 교육 .....	30
◆ 평화 .....	32
■ 대학강연 .....	33
■ 명예학술칭호 및 현창 .....	36
■ 추가 정보 .....	41

## 1. 주요 업적

*“세계평화는 단지 정치가들이 조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속적 평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와 우정의 연대, 생명의 연대를 구축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연대는 서로 마음을 열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힘입니다.”*

이케다 다이사쿠(1928-2023) 선생님은 항구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평생 헌신했다.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외교에 힘쓰고, 세계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제언을 발표했으며, 핵무기 폐기를 끊임없이 호소했다. 평화와 인간, 교육 그리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창립했을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문화계 인사와 학자를 비롯한 핵심 지도자와 만나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왔다. 이 시대의 중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탐색한 대화는 70권 이상의 대담집으로 출판되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불교단체 국제참가학회(SGI)의 회장으로서 이케다 선생님이 펼치는 모든 활동의 근저에는 생명의 존엄성과 무상(無上)한 가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간직한 창조적 가능성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다.

이케다 선생님의 평화에 대한 신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국주의 일본에서 성장한 소년 시절, 전쟁의 비극과 공포를 경험하면서 형성된다. 그리고 핵무기는 절대악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선생님은 특히 1970년대 후반 냉전 갈등이 고조될 무렵부터 수십 년간 핵무기 폐기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1975년과 1998년, 핵폐기를 탄원하는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1978년, 1982년, 1988년 세 차례에 걸쳐 ‘핵폐기 유엔총회 특별회의’에 제언을 제출했다. 그리고 1983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발표한 평화제언을 통해 핵폐기를 향한 가능한 방법을 모색했다.

1982년, 더욱 팽배해지는 냉전의 긴장감 속에서 이케다 선생님은 ‘핵무기: 현대세계의 위협’전을 제안했다. 전시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구 소련, 중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포함 전 세계를 순회, 120만 여명이 관람했다. 또한 2007년에는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 운동을 창설했다.

또한 이케다 선생님의 제안으로, SGI는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난민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1973년부터 2001년 사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참가학회 청년부는 난민 구호를 위해 ‘21 기부금 모금 운동’을 실시, 14억 엔을 UNHCR에 기부했다. 청년부 대표는 15곳의 난민 수용소도 방문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이케다 선생님은 1983년에는 UN평화상을, 1989년에는 UNHCR 인도주의상을 받았다.

2002년과 201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리우+20' 개최에 맞추어 이케다 선생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제언을 발표했다. 나아가 해마다 발표하는 평화제언에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고찰하고, 대담집과 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 다양한 SGI 대중 교육 운동을 고취시켰다. SGI 시민사회 활동에는 전시회, DVD 제작, 강연과 세미나 등이 있고, 주로 유엔기구와 뜻을 같이하는 NGO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이케다 선생님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활동은 역사적 분단과 대립이라는 맥락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문화교류를 추진해 온 점이다. 특히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전쟁 중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이케다 선생님은 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고립된 1968년 당시 중일외교정상화를 호소했다. 그리고 1974년 중러 관계 갈등이 군사적 대응과 위협으로 치달자, 이케다 선생님은 민간인으로 직접 두 나라를 방문하여 지도자들과 대화함으로써 긴장감을 완화시켰다.

이케다 선생님은 또한 전 세계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 과학, 문화, 종교, 예술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대립', '환경파괴', '종교의 역할과 사회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근원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자 중에는 아우렐리오 페체이,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 조지프 로트블랫, 넬슨 만델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왕가리 마타이 그리고 로자 파크스 등이 있다.

이케다 선생님은 '민중과 민중의 연대가 다양성의 존중을 함양하고 공통의 인류애를 확인하게 해주며, 나아가 평화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확신으로 전 세계 민중 간 신뢰의 가교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창립했다. 창립 기관에는 음악과 문화 교류를 위한 민주음악협회(민음), 도쿄후지미술관, 이케다국제대화센터,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 브라질SGI 아마존자연보호센터 등이 있다. 또한 일본과 브라질의 소카학원, 일본과 미국의 소카대학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 6개국에 유치원도 있다.

이와 같은 이케다 선생님의 방대한 활동의 근저에는 '불법의 자비정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윤리관과 사회적 책임감'이라 할 수 있는 '세계시민정신'의 이상이 있다. 그리고 보다 희망차고 긍정적인 글로벌 사회 건설을 위해 청년이 앞장설 수 있도록 늘 청년을 아낌없이 격려했다.



## 2. 생애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은 평화운동가, 불교철학자, 교육자, 작가이자 시인이었다. 선생님은 불교 재가단체인 창가학회 제3대 회장(1960-1979)이자 국제창가학회(SGI) 회장이었다. SGI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매우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는 세계적 규모의 불교단체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평화를 위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창가교육기관 및 평화·문화·교육을 증진하는 여러 기관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이케다 선생님은 1928년 1월 2일 일본 도쿄에서 김 제조업 집안의 8남매 중 5남으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성장기를 보낸 선생님은 버마(현재 미얀마)로 징병된 큰형의 전사를 비롯해 전쟁의 황폐와 공포를 직접 경험했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인류 사회 분쟁의 근본 원인을 없애겠다는 결의와 정열로 이어졌다.

1947년 19세 때, 교육자이며 평화운동가이자 창가학회 지도자인 도다 조세이(1900-1958) 선생님을 불교 모임에서 만나게 된다. 도다 선생님은 전쟁 중 스승 마키구치 쓰네사부로(1871-1944) 선생님과 함께 투옥되었다. 두 사람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국가신도 사상을 강요하는 군사정부의 강압에 굴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을 관철했다. 그리고 마키구치 선생님은 옥중 서거한다. 군사정부에 맞선 도다 선생님의 단호한 의지는 이케다 선생님에게 커다란 인상을 남기게 된다. 훗날 이케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신념을 위해 투옥의 고통을 맞본 사람의 말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느꼈다.”

도다 선생님은 스승이자 교육자인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선생님과 함께 설립한 창가학회 재건에 힘쓰고 있었다. 전쟁 중 정부의 탄압으로 창가학회는 사실상 괴멸상태에 놓였다.

이케다 선생님은 ‘한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니치렌 불법의 철학이 전후 황폐화된 일본사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도다 선생님의 신념을 깊이 받아들인다. 내면의 변화과정을 중시하는 이 ‘인간혁명’ 철학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행복을 쟁취하는 한편, 자신의 지역사회와 주변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준다.

이케다 선생님이 도다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10년 남짓하다. 그러나 은사 도다 선생님의 훈도야말로 삶의 본질적 의미를 규정한 경험이었고, 인간 이케다 자신과 자신이 이루어 낸 모든 일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1960년 5월, 도다 선생님의 서거 2년 후, 32세의 이케다 선생님은 창가학회 회장 직을 계승한다. 1975년 이케다 선생님은 국제창가학회(SGI)를 설립하고 회장이 된다. 현재 세계 192개국·지역에 1,200만여 명의 SGI 회원이 세계적 연대를 맺고 있다. 이케다 선생님은

말했다. “모든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의지와 도의심을 가진 인간이 연대를 맺고 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케다 선생님의 지휘하에 SGI는 세계적인 문화, 인권, 환경, 교육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대단한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불교의 인간주의에 바탕을 둔 이케다 선생님의 핵심 사상은 생명의 본질적 존엄성이다. 그는 생명존중이야말로 항구평화와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핵심 가치라고 믿는다. 또한 세계평화는 사회적 혹은 구조적 개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내적 변혁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념은 창가학회의 역사와 이상을 소설화한 <인간혁명> 서문에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나와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윽고 한 나라의 숙명도 전환하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전환도 가능케 한다.”

이케다 선생님은 다작의 작가로서, 불교해설서에서부터 자전적 에세이, 시, 동화에 이르는 250여 권의 저작이 번역 출판되었다.

히로마사와 다카히로 두 아들이 있고, 부인 가네코 여사와 함께 도쿄에 거주했다.



학생 시절 이케다 선생님  
(도쿄, 1947년)



은사 도다 조세이 선생님과 이케다 선생님  
(왼쪽) (1958년)



100

이케다 선생님과 가네코 여사  
(일본 나가노, 2003년)

### 3.1. 평화운동가: 핵폐기를 향한 도전

*“핵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싸워야 할 상대는 핵무기도 핵보유국도 핵개발국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대결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상대의 섬멸도 불사하는 ‘핵무기를 용인하는 사상’입니다.”*

핵폐기를 위한 이케다 선생님의 신념은 1957년 9월 8일 은사 도다 조세이 참가학회 제2대 회장이 발표한 ‘원수폭금지선언(원자폭탄·수소폭탄 금지선언)’에서 비롯된다. 도다 선생님은 핵무기는 인류를 모욕하는 ‘절대악’이라고 맹렬히 비난했고, 초강대국들이 핵무기 기술의 파괴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청년이 앞장서서 전 세계의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고 호소했다.

1975년 SGI 창립에 즈음하여, 일본 참가학회 청년부가 모은 핵폐기를 탄원하는 1,000만 명의 서명을 유엔본부에 제출했다. 이케다 선생님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직접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케다 선생님은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제언을 1978년, 1982년, 1988년 유엔총회 특별회의에 전달했다. 선생님이 1983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발표한 평화제언의 중점 또한 핵무기 폐기며, 핵무기 폐기와 이를 위한 민중의 목소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제회의 혹은 조약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이는 단지 국가나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결의안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선생님의 신념과 일치한다.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SGI는 다양한 의식개혁 활동을 펼쳐왔다. 1982년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무기 현대세계의 위협’ 교육 전시를 시작으로, 1996년 6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핵무기-인류에 대한 위협’전은 이후 24개국 39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이중에는 핵보유국도 있다.

‘핵시대평화재단(Nuclear Age Peace Foundation)’이 추진한 ‘어볼리션(Abolition) 2000’을 지원하고자, 1997년부터 1998년까지 SGI 회원들은 1,300만 명의 핵폐기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1998년 10월 탄원서를 뉴욕 유엔본부에 전달했다. 2014년에는 500만 명이 ‘핵제로(Nuclear Zero)’ 탄원에 서명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하는 세계적 운동을 주도했다.



연합군 폭격 후의 도쿄 (1945년 3월)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고 외친 도다 조세이 선생님 (1945년 3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노벨평화상, 화학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대화를 나누는 이케다 선생님 (1990년)

이케다 선생님의 제안으로 2007년, SGI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하에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 운동을 창설했다. 이 운동은 핵무기 폐기를 위해 헌신하는 민중으로 구성된 풀뿌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2007년 <핵무기 폐기를 향한 도전 - 폭력의 문화를 넘어 평화의 문화를 창출> 전시를 제작, 지금까지 32개국 230여 도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핵무기와 인간안보의 관련성을 홍보해왔다. 최근 제작된 전시로는 ICAN과 협력하여 2012년 시작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연대-용기와 희망의 선택'전이 있다. 민중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자고 촉구하는 이 전시는 19개국 88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밖에도 SGI는 핵무기 폐기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해왔다. 원폭 생존자의 체험을 담은 다큐멘터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증언: 평화를 위한 여성의 외침'은 5개 언어로 DVD가 제작되었다.

또한 SGI는 2013년 노르웨이 오슬로를 시작으로, 멕시코 나야릿(2014년 2월), 오스트리아 빈(2014년 12월) 등 핵무기와 인도주의적 영향과 관련한 국제회의 주최국으로부터 초청받아 참가해왔다.

불교단체로서 SGI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결과 및 도덕 윤리적 측면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다른 신앙 단체와 협력해왔다. 2014년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관한 빈 국제회의'에서 핵무기 폐기를 바라는 종교계를 대표해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어서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회의(2015년 5월 뉴욕), 핵무기 폐기 공개실무그룹회의(2016년 제네바)에서도 핵폐기 행동을 촉구하는 종교 간 성명을 발표했다.

SGI는 '핵시대 평화재단', ICAN,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캐나다 대인지뢰 금지운동' 등의 국제 NGO와 함께 201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70주년을 기념하고자 '핵무기 폐기를 위한 세계청년서밋'을 히로시마에서 개최했다. 평화운동에 종사하는 23개국 청년 30명이 참석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자고 촉구하는 '청년의 서원'을 발표하고 알헨다위 유엔 청년특사에게 전달했다.

이케다 선생님은 청년의 힘과 열정만이 수많은 자원을 낭비하며 폭력의 정점을 구성해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는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 3.2. 평화운동가: 시민외교와 대화

*“저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렇기에 이윤이나 처지, 정책의 제한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입장은 바로 제가 평범한 서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은 서민으로서 평화를 향한 의지를 세계적 차원으로 화합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입니다.”*

보편적 인류애를 확신하는 이케다 선생님은 전쟁의 상처와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빚어낸 역사적 분단을 넘어, 인간의 연대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했다. 특히 일본과 아시아 이웃나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전쟁 중 일본의 만행으로 고통을 겪은 국가에 직접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케다 선생님이 평생을 바쳐온 시민외교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 ❖ 중일 우호 ❖

1968년 도쿄. 2만 명의 대학생이 모인 회합에서 이케다 선생님은 중일 관계 정상화를 강력하게 호소했다. 당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유엔에서 배제된 상태로, 일본에서도 반(反)중국, 반(反)공산주의 감정이 팽배한 시대다. 연설 후 이어진 심한 비판과 목숨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케다 선생님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고립을 끝내야 한다는 확신 하에 중일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케다 선생님의 제언은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를 포함 중일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던 인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공명당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고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교류의 토대가 마련되어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1974년 12월 이케다 선생님은 저우 총리와 만난다. 말기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저우 총리는 이케다 선생님과 만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당시 76세이던 저우 총리는 이케다 선생님과 대담에서, 아시아 평화를 위해 중일 우호의 항구적 토대를 구축해줄 것을 당부한다.

과거 수천 년 동안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두 나라의 우호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이케다 선생님은 이후 10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 40여 년 동안

청년교류, 문화·교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그러한 노고를 인정받아, 이케다 선생님은 120여 개의 중국 대학으로부터 명예학위를 받았다.

*“나는 중국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성에 항상 감동합니다. 중국은 내 마음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중국에는 ‘사람과 어울릴 때는 그들의 마음과 어울려라. 나무에 물을 줄 때는 뿌리에 물을 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정의 꽃도 깊고 깊은 마음의 연대가 맺어질 때 개화합니다. 결코 형식이나 예의와 같은 겉모습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2 만여 명이 모인 창가학회 대학부 총회에서 중일 관계 정상화 제언을 하는 이케다 선생님 (1968 년)



병환임에도 이케다 선생님을 만나고자 한 저우언라이 총리(왼쪽) (1974 년)

❖ 중소 관계 회복 ❖

핵전멸의 위협이 인류에 드리워진 1970년대는 초강대국 간의 깊은 분열과 갈등의 시기였다. 중소 관계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해 군사충돌을 방불케 하던 1974년 초, 중국을 방문한 이케다 선생님은 소련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중국 인민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모스크바대학교의 초청으로 소련을 첫 방문한 이케다 선생님은 알렉세이 코시긴 총리와 만났다.

총리와의 대담 중, 이케다 선생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두 나라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소련은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다. 코시긴 총리의 허락을 받은 이케다 선생님은 이후 중국 지도부를 만나 소련은 중국을 공격하거나 고립시킬 의향이 전혀 없다는 총리의 말을 전하고, 이로써 양국 간의 긴장은 완화되었다.

*“왜 종교인이 공산국가를 방문하려 하는가? 하는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불산’을 ‘신뢰’로, ‘두려움’을 ‘우정’으로 전환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미래를 향한 신념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크렘린에서 알렉세이 코시긴 소련 총리를 만나는 이케다 선생님 (1968년)

크렘린에서 처음 만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함께 (1990년)



## ❖ 대화 ❖

대화에 대한 이케다 선생님의 믿음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확신’과 ‘폭력은 결코 영구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1970년대부터 40여 년간 이케다 선생님은 배경이 다양한 전 세계 인문, 정치, 경제, 과학, 종교,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저명인사와 만나 수천 번의 대화와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의 목적은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함이었다. 대담자 중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지프 로트블랫, 평화학의 선구자 엘리스 볼딩, 브라질 인권운동가 아우스트레제실로 드 아타이드, 소련 대통령 마하일 고르바초프 등이 있고 70여 편의 대담집이 세계 여러 언어로 출판되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 박사와 1972년부터 1973년에 걸쳐 진행한 대담의 기록인 <21세기를 여는 대화>는 처음으로 널리 발간된 대담집으로 ‘전쟁과 평화’, ‘사형제도’, ‘안락사’, ‘종교의 사회적 역할’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현재 30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아널드 토인비 박사와 함께  
(런던, 1972년 5월)

하버드대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케다 선생님 (1991년)



### 3.3. 평화운동가: 시민사회 리더십과 유엔 지원

#### ❖ 시민사회를 주도 ❖

*“평화라고 해도 결코 일상생활을 벗어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의 ‘생활’ 속에 그리고 ‘생명’과 ‘인생’에 어떻게 평화의 씨앗을 심고 기르는가. 여기에 영속적인 평화를 위한 견실한 전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1975년, 이케다 선생님은 SGI 회장으로 추대된다. 그의 지도하에 SGI는 광범위한 풀뿌리 평화운동으로 발전하여, 현재 전 세계 192개국·지역에 1,200만 여명의 회원이 있다.

‘불법은 활발한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실천 철학이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케다 선생님은 SGI 회원에게 국제적, 사회적 문제에 관한 책임의식을 일깨웠다. 단순한 신앙생활 혹은 종교활동에 그치지 않고, SGI 회원들은 불법의 지혜를 활용,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평화의 민중연대를 구축하는 일을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SGI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NGO 자문기관으로서, 평화와 군비축소, 인권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등과 관련 활발한 대중의식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유엔 지원 ❖

*“테러나 분쟁, 빈곤과 환경 파괴, 기아와 역병 등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 확대되는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엔의 개혁,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유엔은 인류의 국회로서 평화구축과 세계적 연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신했다. 선생님은 수십 년 동안 유엔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고, 1960년 창가학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줄곧 세계 지도자들과 만나 유엔 지원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도 거듭했다. 1983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평화제언을 발표, 철학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했다. 또한 역대 유엔 사무총장과 대담했고, 유엔평화상 및 유엔난민기구 인도주의상을 수상했다.

이케다 선생님은 1966년 베트남전쟁 즉각 종식을 제안했고, 1968년 중일 외교정상화를 촉구했다. 1973년 교육적 유엔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고, 1974년 세계식량은행(World Food Bank) 설립을 제안했다. 1978년에는 환경을 위한 유엔 제언을 발표했고 같은 해 유엔 군비축소특별회의에 ‘핵폐기를 위한 10가지 계획안’을 제출했다.

‘환경, 빈곤, 인권 그리고 평화’라는 연관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을 촉구하는 이케다 선생님의 제안으로 SGI는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 대표단을 파견, 다른 NGO 단체와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제57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이 시작되었다.

이케다 선생님은 ‘유엔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이 끝난 후에도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적 체제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200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인종차별 철폐 세계회의에서 발표했다. 이후 SGI 대표와 NGO 단체의 노력으로 2005년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적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1년에는 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교육 훈련선언’을 채택한다.

이케다 선생님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 환경보존과 방재(防災) 등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공동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중에는 실제로 받아들여져 채택된 구상도 있다.

2006년 8월, 이케다 선생님은 안와를 K. 초두리 유엔 사무차장과 만나 세계기구로서의 유엔의 사명과 강화에 관한 개혁안을 전달했다.

이케다 선생님이 매년 발표한 평화제언은 전 세계 SGI가 추진하는 평화활동의 근간이 되었다. 청년의 주도하에 미국 전역 교육기관에서 실시된 비폭력 교육 프로그램 ‘Victory Over Violence’(폭력에 대한 승리)와 2007년 시작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 운동은 핵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 사람들과 개인을 연대하는 풀뿌리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SGI는 ‘핵군축’, ‘평화의 문화 구축’, ‘지속가능발전’, ‘인권교육’과 같은 주제로 의식전환을 위한 대규모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케다 선생님은 2016년 평화제언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담긴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두며 ‘난민’, ‘인권’, ‘기후변화’, ‘군비축소’ 등과 같은 세계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선생님은 핵시대 종식을 위한 핵무기 금지조약 조기 협상을 촉구했고 민중 특히 청년의 연대를 강조했다.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맥동하는 굳은 약속이 바로 핵무기로 많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짓밟히는 세계가 아닌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존엄을 빛낼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우리 SGI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세계를 향한 명확한 궤도를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인도에서 개최된 ‘변화의 씨앗: 지구헌장 및 인간의 잠재력’ (2007년 9월)



1,300만 명의 핵폐기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UN에 전달해 핵시대 평화재단이 추진한 ‘어블리션(Abolition) 2000’을 지원 (1998년 10월)

### 3.4. 평화운동가: 세계시민정신 고취

“'지구시민'의 개념 및 윤리를 확립하고 '지구시민'을 육성하는 작업은 모든 인간에게 깊이 관련되는 것이며, 이는 모두가 관계하고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시민' 교육을 의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향토 즉 지역사회에 뿌리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40여 년 전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 박사와의 대담을 시작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지속하며 일관되게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6년 6월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선생님은 '지구시민교육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해외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아래와 같은 세계시민의 품격을 갖출 수 있다며 세계시민의 특징을 설명했다.

- 생명의 상관성(相關性)을 깊이 인식해 가는 '지혜로운 사람'
- 인종이나 민족, 문화의 '차이'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여 성장의 양식으로 해가는 '용기 있는 사람'
- 가까운 곳에만 한정하지 않고 먼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동고(同苦)하고 연대해 가는 '자비로운 사람'

강연 이후 이케다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서 '나만의 행복도, 타인만의 고통도 없다', '타국의 민중을 희생하여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통된 합의에 기반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시대의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교육 우선 구상'을 주도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적 담론으로 힘을 받게 된다. 2015년 세계시민교육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에 포함되었다.

이케다 선생님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세계시민교육 채택을 주장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2014년 평화제언에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세 가지 골격을 제안했다.

- 인류가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원인을 사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인간이 일으킨 이상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교육.
-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계적 위기의 징후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사람들과 연대해 조화로운 행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민중 임파워먼트 교육.
-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헤아리는 마음과 동고의 정신을 기르면서, 자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도 다른 나라에 악영향이나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늘 잊지 말고, ‘타국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자국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통의 결의로 서로 고양하기 위한 교육.

세계시민정신은 초대 회장에서부터 2대, 3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창가학회에 이어지는 일관된 철학이다. 초대 회장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선생님은 타국의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번영을 일삼는 형태의 경쟁을 뒤로 하고 함께 협력하여 ‘인도주의적 경쟁’의 시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냉전 시대인 1950년대, 분단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 선생님은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초월, 보편적 인간주의를 자각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지구민족주의’ 정신을 고취시켰다.

‘세계시민 육성’은 ‘세계시민을 위한 문명 간의 대화’라는 취지로 설립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와 미국, 일본, 브라질, 아시아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포함해 이케다 선생님이 설립한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핵심 목표이다.

선생님은 말했다. “미국소카대학교는… 여기서 공부한 모든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지식에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내적 강인함을 개발하고 연마하길 바라는 마음과 희망으로 창립했습니다.”

1993년 이케다 선생님이 창립한 보스턴21세기센터(2009년 이케다국제대화센터로 개칭)는 여러 분야의 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세계적 이슈를 논하고 다양한 방안과 해결책을 찾는 거점이 되고 있다. 설립이념으로는 “지구시민의 연대를 구축하는 거점이 되어라”가 있다.

이케다 선생님은 50여 개국을 방문하며, 세계시민정신을 함양하는 일이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고 늘 청년과 교류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세계 30여 대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강연을 했다.

이케다 선생님은 수십 년간 수필에서부터 시, 스피치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고취했다.



미국 공민권운동의 어머니  
로자 팍스 여사와의 만남  
(로스엔젤레스, 199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지프 로트블랫  
박사와의 만남 (오키나와, 2000년)



SGI와 지구헌장인터내셔널이 공동 개최한 “희망의 씨앗” 전시 (말레이시아, 2012년)

일본 창가학회 청년들이 2006 년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학생들과 만나 교류했다.



세계청년 핵폐기 정상회의 참석자 (히로시마, 2015년 8월)

## 4.1. 불교철학자: 행동하는 불교

“종교는 인간을 영원하고 보편적으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구합니다. 또한 종교는 사람들의 현실 생활과 사회의 향상을 위해 헌신한다는 이상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케다 선생님의 평화활동은 모든 사람이 번뇌를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한 13세기 니치렌(日蓮, 1222-1282) 대성인의 교의와 법화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화경은 인간생명에 내재한 무한한 가능성과 존엄성을 설하고 그 변혁의 가능성을 촉발시키는 길로 안내한다. 또한 ‘용기, 지혜, 자비’라는 가장 숭고한 인간성을 개발하고, 타인을 위한 ‘보살도’의 이상을 구현한다.

이케다 선생님은 법화경과 니치렌불법의 깊은 철학을 현대에 접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불법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명확히 밝혀 적용하고, 대화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핵심가치에 상응하는 ‘보편적 인간의 가치’를 찾아내 상호 이해와 협동 나아가 평화를 증진하고자 했다.

또한 석가모니, 법화경 그리고 니치렌불법 사상에 관해 방대한 양의 저서를 출간했다. 그 중에는 학자들과의 대담도 있는데 언제나 주안점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고뇌 해결을 위해 불법의 가르침을 어떻게 접목시키는가이다.

종교의 목적은 인간의 내면을 해방시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평화와 행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케다 선생님은 말했다.

“종교를 갖는 것이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가 약하게 만드는가’, ‘선하게 만드는가 악하게 만드는가’ 또 ‘현명하게 만드는가 어리석게 만드는가’라는 관점은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자문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종교의 인간화’가 가능해집니다.”

## 4.2. 불교철학자: 종교 간 대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는 일’에서 출발해 과제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문명이나 종교가 길러온 영지를 결집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나 행동규범을 부각시키는 ‘문제 해결 지향형’의 접근을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좋은 자기’일 것 즉 그 가장 좋은 정신적 전통을 되살려 그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생사회를 지구 규모로 실현하는 데 창조적으로 관여하는 일입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세계 주요 종교인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그리고 불교의 대표 및 저명한 학자들과 대담을 계속했다. 세계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2009년에는 침례교 목사이자 하버드대학교 신학 前교수인 하비 콕스 박사와의 대담집 ‘21세기 평화와 종교를 말한다’ 그리고 인도의 불교철학자이자 인도문화국제아카데미 이사장 로케시 찬드라 박사와의 대담집 ‘동양철학을 말한다’가 발간되었고, 2011년에는 유교 연구의 세계적 학자인 두웨이밍 박사와의 대담집 ‘대화의 문명-평화의 철학 희망을 말한다’가 발간되었다.

이케다 선생님과 대담한 이슬람교 인사에는 인도네시아 와히드 前대통령, 하와이대학교 前교수 마지드 테라니안 박사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사회문화인류학 및 중동연구학 연구교수 놀 야먼 박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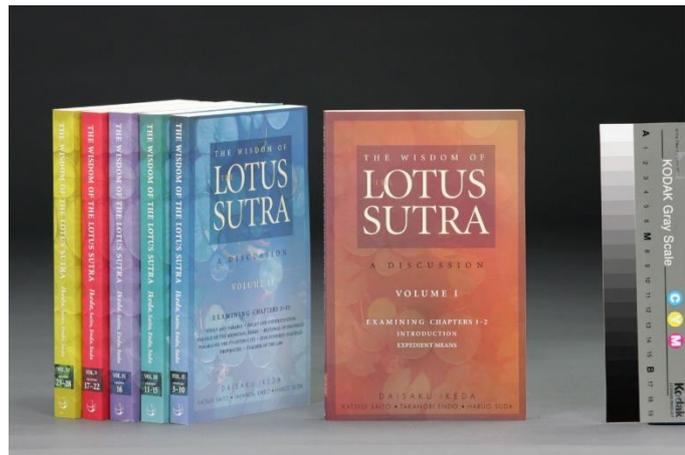
대담집 ‘오늘의 세계 내일의 문명 - 새로운 평화의 실크로드’에서 야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문명과 종교에 관한 이케다 박사의 대화는 전 세계 사람을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중대한 주제에 관해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케다 박사는 인류 모두에게 위대한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를 바탕으로 SGI는 지역과 국가 차원의 종교 간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인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 등에서 활발한 종교 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세계종교의회를 포함 국제포럼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케다 선생님이 1962년 설립한 동양철학연구소는 아시아의 문화유산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불교와 타종교 간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케다 선생님은 불교와 동양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인도문화국제아카데미의 명예회원으로 임명되었다. (도쿄, 1998년 11월)



이케다 선생님과 불교학자들이 논한 <법화 경의지혜> (월드트리분 발행, 2000~03년)



인도국립공문서관 제공 길기트 법화경 필사본 사본 (참가학회 출간, 2012년)

## 부록: 제언

198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월 26일 SGI의 날을 기념하여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은 평화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에서 이케다 선생님은 평화와 인간의 안보를 실현하고자 불법의 핵심사상과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상관성을 탐구한다. 덧붙여 교육개혁, 환경, 유엔 그리고 핵 폐기 등에 관해서 구체적 제언을 한다.

### ❖ 1.26 기념 제언 ❖

2021	위기의 시대에 가치창조의 빛을
2020	인류공생의 시대를 향한 건설의 고동
2019	평화와 군축의 새로운 세기를
2018	인권의 세기를 향한 민중의 대하(大河)
2017	희망을 여는 새벽종 청년의 대연대
2016	만인 존엄이 평화를 향한 위대한 길
2015	인도주의 세기를 향한 굳은 연대
2014	지구혁명을 향해 가치창조의 만파를
2013	2030년을 향해 평화와 공생의 큰 조류를
2012	생명존엄의 연대가 빛나는 세기를
2011	‘울려 퍼져라! 창조적 생명의 개가’
2010	‘새로운 가치창조의 시대로’
2009	인도적 경쟁을 위한 새로운 조류
2008	평화의 천지 인간의 개가
2007	생명의 변혁 지구평화로 가는 이정표
2006	신민중의 시대로 평화의 대도
2005	세기의 하늘에 인간주의의 깃발
2004	내적 정신혁명의 만파를
2003	시대정신의 물결 세계정신의 빛
2002	인간주의-지구문명의 여명
2001	생명의 세기를 향해 크나큰 조류
2000	평화의 문화 대화의 대륜(大輪)
1999	평화의 개가 우주관의 부흥

1998	만년의 원정,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1997	지구문명을 향한 새로운 지평
1996	제 3의 천년을 향한 세계시민의 도전
1995	부전의 세기를 향한 인간공화의 조류
1994	인류사의 아침, 세계정신의 대광
1993	신세기로 휴머니티의 깃발
1992	희망과 공생의 르네상스
1991	위대한 인간세기의 여명
1990	희망의 세기로 민주주의 개가
1989	새로운 글로벌리즘의 여명
1988	평화의 고동, 문화의 무지개
1987	민중의 세기를 비추는 평화의 광채
1986	항구평화를 위해 대화의 대도(大道)를
1985	21 세기를 향한 평화의 새 물결
1984	세계 부전(不戰)을 향한 광대한 흐름을
1983	평화와 군축을 위한 새로운 제언

❖ 유엔 제언 ❖

2006	세계가 기대하는 유엔으로: 지구평화의 기축인 유엔의 큰 사명에 활력을
------	---

❖ 핵 폐기 제언 ❖

2009	핵무기 폐기를 향한 민중의 연대를
1988	전면군축을 위한 세계적 조류를 (제 3 회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발표)
1982	군축 및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제언 (제 2 회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발표)
1978	핵군축 및 핵폐기를 향한 10 항목 제언 (제 1 회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발표)

❖ 지속가능발전 제언 ❖

2012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로 가는 길
2002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구헌장은 21 세기 지표
1990	환경문제와 불교
1978	환경과 인간은 하나

❖ 교육 제언 ❖

교육제언은 이케다 선생님이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해온 핵심 철학을 보여준다. 일본 교육제도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교육과 관련한 전반적 사상을 논하고 있다.

2001	교육력의 권리 회복을 위해 내면적 정신성의 빛을
2000	교육을 위한 사회를 지향하여

❖ 중일 우호 제언 ❖

1968	중일 관계 정상화 제언
------	--------------

## 부록: 저서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은 불교철학서에서부터 수필, 시, 동화에 이르기까지 250여 권의 저작을 출간한 다작 작가로, 선생님의 저작은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인문, 정치, 경제, 과학, 종교, 예술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저명인사와의 대담을 엮은 대담집도 70여 권에 이른다.

다음은 한국어로 출간된 주요 서적이다

### ❖ 불교철학 ❖

법화경의 지혜(상,중,하)	2015~16년, 화광신문사
법화경 방편품·수량품 강의	2013년, 화광신문사
희망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2012년, 화광신문사
어서와 사제	2011년, 화광신문사
생사일대사혈맥초 강의	2009년, 화광신문사
일생성불초 강의	2008년, 화광신문사
개목초 강의(상,하)	2006~7년 화광신문사
어서의 세계(1,2,3)	2004~5년, 화광신문사

### ❖ 대담집 ❖

지구혁명을 향한 도전	2023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재즈와 불교 그리고 환희 찬 인생	2022년, 중앙일보 s
지구 평화를 향한 탐구	2020년, 중앙북스
21세기 평화와 종교를 말한다	2019년, 조선뉴스프레스
인간과 문화의 무지개 다리	2017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동양철학을 말한다	2016년, 중앙북스
우주와 지구와 인간	2010년, 조선뉴스프레스
21세기를 여는 대화	2008년, 화광신문사
인생문답	2004년, 화광신문사
희망의 세기를 향한 도전	2004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20세기 정신의 교훈	2003년, 연합뉴스
평생을 통한 평화의 추구	1995년, 신영미디어
21세기에의 경종	1991년, 일조각

❖ 소설·일기·강연 ❖

소설 인간혁명(1~12)	화광신문사
소설 신·인간혁명(1~30)	화광신문사
젊은 날의 일기(1~4)	화광신문사
21 세기 문명과 대승불교(강연집)	화광신문사

❖ 기타 ❖

인생좌표	2018 년, 중앙북스
미래대화	2017 년, 화광신문사
지지 않는 청춘	2015 년, 조선뉴스프레스
해피로드	2013 년, AK 커뮤니케이션
여성에게 드리는 100 자의 행복	2013 년, 연합뉴스
감사합니다 한국	2012 년, 조선뉴스프레스
이케다 다이사쿠 명언 100 선	2011 년, 매일경제신문사
인간의 시	2010 년, 화광신문사
세계 평화의 교향곡	2009 년, 도서출판 천우
미래를 바라보며	2009 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교육의 세기를 향하여	2007 년, 화광신문사
청춘대화 보급판(1,2)	2007 년, 화광신문사
아내의 미소	2006 년, 한겨레출판
교육의 빛	2006 년, 화광신문사
그대가 세계를 바꾼다	2005 년, 도서출판 아진
21 세기 어머니와 자녀를 말한다(1,2,3)	2003~6 년, 화광신문사
희망대화	2003 년, 화광신문사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2001 년, 화광신문사
히말라야 빛의 왕국	2000 년, (주)신영미디어
인간혁명의 세기로	1996 년, 중앙일보 J&P
평화의 맑은 강	1991 년, (주)신영미디어
눈나라 왕자님	1990 년, (주)신영미디어

## 부록: 설립 기관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은 평화·문화·교육 증진을 목표로 학교와 박물관, 연구소를 포함해 수많은 기관을 설립했다.

### ❖ 동양철학 ❖

동양철학연구소는 아시아의 문화유산 연구를 증진하고, 동양 사상과 철학에 관한 학문적 자료를 수집, 현대 사회에서 불교와 타종교 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1962년 설립되었다. 니치렌불법, 법화경, 그리고 가치창조의 철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생명윤리, 글로벌 환경문제, 여성문제, 종교와 인간주의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 세미나 및 기독교, 이슬람교 및 불교를 포함한 '종교 간 대화'를 주최하고 참여한다.

[[www.iop.or.jp](http://www.iop.or.jp)]

### ❖ 문화교류 ❖

민주음악협회(민음)는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1963년 설립되었다. 예술적 표현은 국가와 민족,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민음은 전 세계 100여 국가와 지역의 음악, 무용, 공연 예술가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대중에게 세계 최고의 음악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민음은 도쿄 국제음악경연대회 주최와 학생들을 위한 무료 학교콘서트를 개최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2015년 2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그리고 생태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화구축을 위한 음악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민주음악연구소를 개소했다.

[[www.min-on.org](http://www.min-on.org)]

도쿄후지미술관은 '세계 예술과 문화의 교차로'가 되어 문화의 힘을 통해 평화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되었다. 약 30,000점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 및 시대의 작품과 독특한 초기 사진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1990년에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외무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www.fujibi.or.jp/en/](http://www.fujibi.or.jp/en/)]

❖ 교육 ❖

2024	말레이시아 소카국제학교
2008	한국 행복유치원
2003	브라질 소카학원
2001	브라질 소카유치원
2001	미국 소카대학교
1994	말레이시아 소카유치원
1993	싱가폴 소카유치원
1992	홍콩 소카유치원
1985	소카 단기여자대학, 도쿄
1982	간사이 소카초등학교
1978	도쿄 소카초등학교
1976	삿포로 소카유치원
1973	간사이 소카중·고등학교
1971	소카대학교, 도쿄
1968	소카중·고등학교, 도쿄

**소카학원**

도쿄 고다이라에 위치한 소카중·고등학교는 1968년 이케다 선생님이 설립했다. 5년 뒤 간사이 소카중·고등학교 개교와 함께 오늘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대학에 이르는 일관된 교육으로 발전한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그리고 브라질에도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간사이소카고등학교(2015년), 도쿄소카고등학교(2016년) 모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선정하는 ‘수퍼 글로벌 고등학교(Super Global High Schools)’ 56개교 안에 들어간다.

창가교육은 ‘학습자의 평생행복’, ‘어린이의 개성과 인격형성’, ‘사회에 공헌하는 삶의 중요성’이라는 핵심목표를 근간으로 한다.

[[www.soka.ed.jp/english](http://www.soka.ed.jp/english)]

**일본 소카대학교 (SUJ)**

도쿄 하치오지에 위치한 소카대학교는 1971년 이케다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건학정신을 토대로 설립했다.

- 인간교육의 최고학부가 되라
- 새로운 대문화 건설의 요람이 되라
-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가 되라

소카대 재학생의 수는 대학원생을 포함 8,000여 명, 통신대학생 9,000여 명 그리고 소카단기여자대학생(1985년 개교) 540여 명이다. 현재 소카대는 50여 개국 200여 개의 대학과 학술교류협정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체결, 50개국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일본 최대 규모다. 소카대는 2015년 9월 일본 문부과학성 '탑 글로벌 대학(Top Global Universities)'으로 선정되었다.

소카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소카대학교는 종교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은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다.

[<http://www.soka.ac.jp/en/>]

### **미국소카대학교 (SUA)**

미국 캘리포니아 알리소 비에호에 위치한 미국소카대학교는 사립, 비영리, 4년제 인문과학대학 및 대학원이다. 재학생의 출신 국가는 40여 개국에 달하며, 어떠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SUA는 '지구적 차원의 인간주의 세계관을 함양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항구적 평화와 인류의 당면 과제 해결을 앞당긴다'는 교육 철학으로 설립되었다. SUA는 US News & World Report's '2015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최고의 가치와 인종적 다양성(Best Value & Ethnic Diversity)' 분야에서 미국 인문과학대학 5위 안에 들었으며, 외국인 학생(유학생) 비율과 교직원 역량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www.soka.edu](http://www.soka.edu)]

### **마키구치기념교육기금회**

창가학회 초대 회장이자 교육자인 마키구치 쓰네사부로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일본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해외 유학생에게 보조금과 장학금을 지원한다.

마키구치기념교육기금회는 국내·국제 교육사업, 연구기관, 교류 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학교를 중심으로 도서 및 학용품을 기증한다. 또한 교육 연구와 교수법 증진에 앞장서는 교육자 그리고 교육기관의 공로를 표창한다.

## ❖ 평화 ❖

### **이케다국제대화센터 (옛 보스턴21세기센터)**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에 위치한 이케다국제대화센터는 1993년 설립, 2009년에 개칭되었다. 여러 분야의 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21세기 인류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과 해결책을 찾는 거점이 되고 있다. 공개 토론회와 학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세계화 시대의 윤리를 둘러싼 핵심 주제에 관해 다양한 관점을 모색한다. 이케다센터의 가장 특징적인 행사로는 해마다 개최되는 문명 간의 대화가 있다. 센터에서 발행한 교육과 평화 관련 서적은 900여 개의 대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www.ikedacenter.org](http://www.ikedacenter.org)]

###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 (옛 도다국제평화정책연구소)**

도다 조세이 창가학회 제2대 회장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6년 설립되었다. 평화학자, 정책 입안자,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세계시민을 위한 문명 간의 대화'라는 취지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전 세계 500여 명의 평화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했고, 국제회의 및 다양한 활동의 결과는 40여 권의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주요 연구활동 분야는 '인류의 안보', '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특히 '핵군축'을 강조하고 '유엔 개혁과 환경윤리'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www.toda.org](http://www.toda.org)]

## 부록: 대학강연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은 전 세계 30여 개 대학과 학술기관에서 교육과 문명에 관련된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기관	강연주제	강연일
팔레르모대학교 (이탈리아)	문명의 십자로에서 인간문화의 흥륭을	2007. 3.23
라지브 간디 현대문제연구소 (인도)	'뉴 휴머니즘'의 세기로	1997.10.21
아바나대학교 (쿠바)	신세기를 향해 위대한 정신의 가교를	1996. 6.25
컬럼비아대학교 (미국)	'지구시민' 교육에 대한 고찰	1996. 6.13
사이먼위젠탈센터 (미국)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 인도주의와 정의의 생애	1996. 6. 4
트리부반대학교 (네팔)	인간주의의 최고봉을 우러러보며 - 현대를 사는 석존	1995.11. 2
아테네오 문화학술협회 (스페인)	21 세기 문명의 여명을 - 파우스트의 고뇌를 초월해	1995. 6.26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미국)	평화와 인간을 위한 안전보장	1995. 1.26
볼로냐대학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안목과 인류의 의회 - 유엔의 미래에 대한 고찰	1994. 6. 1
모스크바대학교 (러시아)	인간 - 크나큰 코스모스	1994. 5.17
선전대학교 (중국)	'인간주의'의 한없는 지평	1994. 1.31
하버드대학교 (미국)	21 세기 문명과 대승불교	1993. 9.24
브라질 문학아카데미	인간문명의 희망찬 아침을	1993. 2.12
클레어몬트 매케나대학교 (미국)	새로운 통합원리를 찾아서	1993. 1.29
중국 사회과학원	21 세기와 동아시아 문명	1992. 10.14
앙카라대학교 (터키)	문명의 요람에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1992. 6.24
간디기념관 (인도)	전쟁 없는 세계를 향하여 - 간디주의와 현대	1992. 2.11
홍콩 중문대학교	중국적 인간주의 전통	1992. 1.30
하버드대학교 (미국)	소프트파워 시대와 철학 - 새로운 미일관계를 열기 위해	1991. 9.26
필리핀대학교	평화와 비즈니스	1991. 4.21
마카오 동아대학교	새로운 인류의식을 찾아서	1991. 1.30
베이징대학교 (중국)	교육의 길 문화의 다리 - 내 고찰	1990. 5.28

강연기관	강연주제	강연일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아르헨티나)	'융합의 땅'에 올려퍼지는 지구주의 고동	1990. 3. 1
프랑스학사원	동서 예술과 정신성	1989. 6.14
푸단대학교 (중국)	인간이 바로 역사창출의 주역	1984. 6. 9
베이징대학교 (중국)	평화로 가는 왕도 - 내 고찰	1984. 6. 5
부쿠레슈티대학교 (루마니아)	문명의 십자로에 서서	1983. 6. 7
소피아대학교 (불가리아)	동서융합의 녹야를 찾아서	1981. 5.21
과달라하라대학교 (멕시코)	멕시코의 시심에서 생각한다	1981. 3. 5
베이징대학교 (중국)	새로운 민중상을 찾아서 - 중국에 관한 내 고찰	1980. 4.22
모스크바대학교 (소련)	동서 문화교류의 새로운 길	1975. 5.27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 미국)	21 세기를 위한 제언 - 휴머니티의 세기로	1974. 4. 1

❖ 주요 강연 발췌문 ❖

❖ 쿠바 아바나대학교 (1996) ❖

“신세기를 향한 위대한 정신의 가교를”

자신의 '일념'의 변혁은 '시심(詩心)'의 훈발과도 연동하고 있습니다. 이 '일념'의 확대가 타인과 공감하고 주위에 공헌을 넓히면서 생명 깊은 곳에서 지혜와 자비의 태양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만민에게 평등하게 열린 '인간존엄' 또 '생명존엄'의 광채겠지요.

이 내면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인간혁명'만이 '인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의 번영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창출하는 기점이 됩니다.

❖ 네팔 트리부반대학교 (1995) ❖

“인간주의의 최고봉을 우러러보며-현대에 사는 석존”

만물을 육성하고 번영과 행복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행동은 우주가 인류에게 의탁한 사명이며, 이 사명을 자각하고 달성하는 데 ‘사는 의미’가 있다고 석존은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자비론은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존중하는 ‘공생(共生)의 문화’를 양성하고, 지구환경과 공영(共榮)하는 ‘자연관’을 배양할 것입니다.

❖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 (1994) ❖

“인간-거대한 코스모스”

생생한 ‘보편성’의 광채 없이는 휴머니즘과 글로벌리즘의 지평(地平)에는 언제까지고 도달할 수 없겠지요. 아울러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면서 ‘소아(小我)’에서 ‘대아(大我)’로, 자아(自我)를 확대하는 속에서만 구축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미국 하버드대학교 (1993) ❖

“21세기 문명과 대승불교”

‘전쟁과 혁명의 세기’가 남긴 비극은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 외형만의 변혁에는 없다는 교훈을 명확히 남겼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기에는 이러한 생사관·생명관의 변혁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인도 간디기념관 (1992) ❖

“전쟁 없는 세계를 향하여-간디주의와 현대”

간디의 ‘낙관주의’는 정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전망하여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상대론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의도 그러하거니와 비폭력도 철저한 자기통찰의 결과 조건 없이 자기 심중에 세워진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며,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불괴(不壞)의 신념입니다.

❖ 터키 앙카라대학교 (1992) ❖

“문명의 요람에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뛰어난 견식과 균형감각의 소유자만이 비로소 자국과 세계, 개별과 보편의 균형이 잡힌 열린 정신을 갖고 보편적인 지구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관계를 올바르고 공평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규칙은 그런 정신적 기반 위에서만 갖춰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1989) ❖

“동서융합의 푸른 들을 찾아서”

정치와 종교가 함께 손을 잡고 무엇인가에 봉사한다 - 그 무엇인가는 인간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자기들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인간을 위하고’ ‘민중을 위해’ 사수해야만 본디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 부록: 명예학술칭호 및 현창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이 평화·교육·문화 교류 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받은 명예학위의 수는 명예박사학위와 명예교수를 포함 409개이다.

### ❖ 세계 주요 명예학술칭호 (총 409개) ❖

국가	명예학위	년도
러시아(구소련)	명예박사	1975
불가리아	명예교육학, 사회학박사	1981
중국	명예교수	1984
아르헨티나	명예박사	1990
필리핀	명예법학박사	1991
홍콩	최고객원교수	1992
터키	명예사회과학박사	1992
케냐	명예문학박사	1992
브라질	명예박사	1993
파라과이	명예박사	1993
이탈리아	명예박사	1994
영국	명예박사	1994
남아프리카공화국	명예교육학박사	1995
네팔	명예문학박사	1995
홍콩	명예문학박사	1996
쿠바	명예인문학박사	1996
가나	명예법학박사	1995
몽골	명예인문학박사	1997
인도	명예문학박사	1998
페루	명예박사	1999
파나마	명예박사	2000
태국	명예행정학박사	2000
오스트레일리아	명예문학박사	2000
캄보디아	명예교수	2002
대만	명예철학박사	2003
요르단	명예인문학박사	2004
멕시코	명예박사	2004
벨로루시공화국	명예교수	2005
베트남	명예박사	2005
라오스	인문학 명예교수	2006

국가	대학교	명예학위	년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공과대학교	명예박사	2006
이탈리아	팔레르모대학교	명예커뮤니케이션학박사	2007
러시아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	명예박사	2007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국립자치대학교	명예박사	2008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국립대학교	명예박사	2008
덴마크	남덴마크대학교	명예박사	200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학교	명예철학, 평화박사	2009
캐나다	라발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2010
중국	칭화대학교	명예교수	2010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	명예인문학박사	2010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보스톤캠퍼스	명예인문학박사	2010
잠비아	잠비아대학교	명예법학박사	2011
영국	버킹엄대학교	명예문학박사	2011
카자흐스탄	카자흐민족대학교	명예교수	2012
아르메니아	예레반국립대학교	명예박사	2013
스페인	알칼라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2018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국립대학교	명예박사	2019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명예인문학박사	2022
아르헨티나	국립미시오네스대학교	명예박사	2023
파라과이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	명예박사	2023

❖ 국내 주요 명예학술칭호 (총 20개) ❖

수여학교	명예학위	수여일
경희대학교	명예철학박사	1998. 5.15
국립제주대학교	명예문학박사	1999. 5.17
국립창원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2001.12.15
동아대학교	명예철학박사	2002.12. 2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2009. 4. 2
홍익대학교	명예문학박사	2009. 9. 4
건양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2010.12.23
충주대학교(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2011. 7.17
국립부경대학교	명예국제지역학박사	2011. 9.16
북한대학원대학교	명예석좌교수	2015. 5. 4
경남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2015. 9.20
국립충북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2022. 4.28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철학박사	2023. 5.20

❖ 주요 수여사 발췌문 ❖

❖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철학박사, 2023) ❖

박정운 총장

이케다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의 ‘용기’ 때문입니다. 이케다 선생님의 명언집에서 용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꿈과 숭고한 이상, 커다란 포부가 있어도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용기가 필요하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꿈도 이상도 희망도 사라지게 된다.”

특히, 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정말 어려운 일로 생각되지만, 항상 한국을 ‘문화대은(文化大恩)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으로부터 받은 문화의 은혜를 일본이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재일교포 인권 운동에 헌신하시는 등, 평생을 평화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항상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일평생을 일관되게 자기 희생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라는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관통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주신 분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예로운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자리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케다 선생님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 영예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익대학교 (명예문학박사, 2009) ❖

김완철 총장대행

무엇보다 세계의 청년과 국가지도자를 향해 우리나라를 ‘문화대은의 나라’ ‘스승의 나라’라고까지 표현하시며 오늘날 민간교류의 문을 과감하고 용기 있게 열어오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케다 박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에게 주신 수필과 시를 읽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별에 괴로워하는 어느 재일한국인 여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본디 인간에게 국경 따위는 없었다. 그것이 언제인가 인위적으로 국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경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인간연대에 도달해 살아갈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웃나라 일본에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와 진정한 우호·평화를 바라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케다 박사가 반세기 가깝게 한국·중국·러시아 등을 비롯해 길 없는 길을 개척하신 행동이 본래 상찬받아 마땅함에도 일본에서는 이유도 없이 비판이나 중상모략을 받아오신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위업을 달성한 선구자는 늘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그 의미는 ‘널리 전 세계 인류에 봉사하는 이로운 사람이 되자, 널리 인류에 봉사하는 인간교육을 하자’는 ‘인간교육의 보편적인 정신’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 건학이념에 비취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이케다 박사를 상찬하고 싶습니다.

❖ 요르단대학교 (명예박사, 2004) ❖

시타위 압달라 부총장

이케다 박사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뿌리뽑고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사상가, 작가 그리고 교육자로서 이케다 박사는 ‘문화와 철학의 경계를 초월하여 교류하고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인간은 신뢰와 이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숭고한 이상을 위해 헌신해오셨습니다.

엘 하산 빈 탈랄 왕자 성명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라는 이상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관념과 이데올로기의 연대가 아닌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사람들의 연대를 토대로 합니다.

이케다 박사는 인간 생득권의 대단한 수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문화의 온건파도 중도파도 이케다 박사와는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 유산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논할 수 있습니다.

❖ 호주 시드니대학교 (명예박사, 2000) ❖

주디스 키니어 부총장 대행

이케다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칭송받는 인물입니다만 그가 인류를 위해 얼마나 노고했는지 간과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에 대한 이케다 박사의 깊은 통찰력은 그의 재치와 사진, 시 그리고 무릎과 무릎을 맞댄 대화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박사는 여러 대통령, 왕자와도 교류했지만 여전히 평범한 시민, 어린이, 세계 곳곳의 학생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케다 박사가 펼쳐온 세계적 차원의 대화 운동과 직접 육성한 참가학회의 국제적 우정의 네트워크는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케다 박사는 참으로 유일무이한 세계시민입니다.

❖ **경희대학교 (명예철학박사, 1998)** ❖

**조영식 창립자**

이케다 선생은 몇 번이고 ”한국은 우리의 은인의 나라다.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들어서 한일 관계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많은 반목을 겪는 것에 대해 충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하였습시다만 그 사과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에 비해 이케다 선생은 진심으로 우리나라오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홍콩대학교 (명예박사, 1996)** ❖

**미미 찬 대학 대표 연설자, 교수**

종교지도자, 철학자, 작가, 시인, 세계적 인도주의자, 교육자, 세계 문화계에서 유명한 인물... 이러한 호칭으로도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업적을 모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이케다 회장은 참된 의미에서 르네상스 맨(Renaissance man: 특히 문학과 회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능하고 관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 **각종 수상** ❖

유엔평화상 (1983), 케냐 구전문학상 (1986), 유엔영예표창 (1988), 유엔난민기구 인권상 (1989), 로자팍스 인권상 (1993), 타고르 평화상 (1997), 위대한 세계시민상 (2002), 푸시킨 금메달 (2005) 등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대한민국 등 24개국으로부터 정부 훈장 수훈

❖ **회원증** ❖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 계관시인 (1981), 범아프리카 작가협회 명예창립회원 (1993), 세계시인협회 세계계관시인 (1995), 유럽과학예술원 명예이사 (1997), 유엔 세계연합 명예고문 (1999), 인도과학협회 명예자문위원 (2002), 인터컨티넨탈 국제시인협회 세계민중시인 (2007), 러시아예술원 명예회원 (2007) 등

❖ **명예시민증** ❖

이케다 선생님이 전 세계에서 받은 명예시민증은 820여 개(한국 82개)에 달한다.

## 부록: 추가 정보

### ❖ 이케다 다이사쿠 ❖

생애와 업적

[www.daisakuikedada.or.kr](http://www.daisakuikedada.or.kr)

시대별 활동

[www.daisakuikedada.or.kr/biography/biography\\_02.html](http://www.daisakuikedada.or.kr/biography/biography_02.html)

### ❖ 이케다 다이사쿠 명언 사이트 ❖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www.ikedaquotes.or.kr](http://www.ikedaquotes.or.kr)

### ❖ 설립기관 ❖

민음 (민주음악협회)

[www.min-on.org](http://www.min-on.org)

도쿄후지미술관

[www.fujibi.or.jp/en/](http://www.fujibi.or.jp/en/)

동양철학연구소

[www.iop.or.jp](http://www.iop.or.jp)

이케다국제대화센터 (전 보스턴21세기센터)

[www.ikedacenter.org](http://www.ikedacenter.org)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 (전 도다국제평화정책연구소)

[www.toda.org](http://www.toda.org)

소카중·고등학교

간사이: <https://sites.google.com/soka.ed.jp/kansaicampus/>

도쿄: [www.soka.ed.jp](http://www.soka.ed.jp)

소카대학교

[www.soka.ac.jp/en/](http://www.soka.ac.jp/en/)

미국소카대학교

[www.soka.edu](http://www.soka.edu)

### ❖ 관련 링크 ❖

국제창가학회(SGI)

[www.sgi.org](http://www.sgi.org)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창가학회 초대 회장

[www.tmakiguchi.org](http://www.tmakiguchi.org)

도다 조세이 창가학회 제2대 회장

[www.joseitoda.org](http://www.joseitoda.org)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 제2기

<https://peoplesdecade2.wixsite.com/nuclear-abolition>

2024년 1월